

### 목어 깨달음의 길목



“아아! 초목은 무정물인데도 때가 되면 낙엽져 떨어진다”  
송대(宋代)의 대 문장가 구양수가 가을 소리를 들으며 탄식한 말이다. 무정물인 초목도 시드는 때가 있는데 온갖 근심으로 나날을 보내는 사람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탄식이 뒤따른다.

가을을 느끼는 감회들은 참으로 다양하지만, 무언가 쓸쓸하고 허무한 느낌이 많은 것 같다. 벤치 옆구리가 뒹나니 빈 것 같은 느낌, 거기로 찬바람이 휘잉- 불어드는 느낌... 중년을 넘어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느낌에 처연해 지곤 할 것이다. 거들 것은 거두고 버릴 것은 버리는 가을의 기운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때문일까? 아니면 바쁜 삶 속에서 있고 있었던, 어차피 시들어 지게 마련인 생명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아픈 감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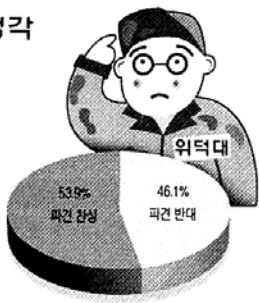
그러나 자연의 순환으로 본다면 낙엽지고 시드는 것도 생명의 한 과정일 따름이다. 가을과 겨울의 심판이 없다면 어찌 봄의 새로운 태동이 있으랴! 그런 각도에서 크게 보면 죽음도 보다 차원 높은 생명의 한 과정일 따름이다. 나의 삶을 중심으로 하여 보는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큰 생명의 한 흐름을 생각할 수 있다.

무상한 것으로 따지면 어차피 죽어 없어질 것들, 그것들에 대한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삶과 죽음에 초연하며,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도 없지 않은가? 이런 답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쉽게 주어질 수 있는 답안은 사랑에도 애견(愛見)과 자비(慈悲)가 있다 하는 것일 것이다. 애착에 바탕한 감상적인 사랑과, 무상함을 꿰뚫어 보며 집착없이 배푸는 사랑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 집착과 무지 때문에 애견(愛見)이라 불릴 만장. 그것이 바로 대바심의 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에 “원래 그런 것을...” 하는 무심함보다는 뜻없는 것들에 대한 뜻없는 사랑이라고. 그 때문에 오는 뜻없는 감상이라든가 귀하게 여기고 싶다. 큰 깨달음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의 조그만 망상일지라도...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 본지 논설위원)

### 불자의 생각 군승파견



최근 조계종은 전각 종의 종립 위덕대를 군승파송하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다뉴스 네티즌 설문조사

### ‘위덕대 군승파견’ 반대 안해 53.9%

사한 결과 총 응답자 76명 가운데 41명(53.9%)이 공감하지 않는다. 35명(46.1%)이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공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22명(48.9%)이 군법사 수급문제 해소, 10명(22.2%)이 군포교 여건개선, 6명(13.3%)이 종립학교 활성화와 위상제고 라는 의견을 밝혔다. 공감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18명(47.4%)이 종지종통의 차이로 인한 혼돈, 14명(36.8%)이 기존 군승단 운영의 혼란이라고 답변했다.

○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 조사가 서쪽에세운 큰 뜻은?  
不立文字 見性成佛에 있으며  
達摩西來一字無  
全憑心印用工夫  
若向紙上尋佛法  
筆沾尖乾洞庭湖  
千經萬典不如心  
昂明人中師一點  
**통일부장관상 수상**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전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이 고민하십니까?  
● 민병의 근원인 비만증, 치매, 중풍 등 각종 병마를 이기는 법에 동참하시어 만수무강 하시는 대도통하시기 바랍니다.  
웅조 달마상의 비법은 세태양의 법도로 흥한터, 수백차단, 초상, 상문, 사업장, 이사, 개업, 학업, 진학, 고시 등 일체 마당을 소멸할 수 있는 달마도상을 모셔 소원성취하시고 달마종의 근본 법도와 진정한 종교의 근본 진리를 통하여 만인을 구하고 위로는 꺼져가는 민족의 얼과 종교의 근본 혼을 찾아 지구촌 이그리진 법도를 바로 세워 만종생들의 고통을 구제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본 중단 달마중에 입문하시고 본 중단에서는 복지자의 인연을 맺고자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천년에 한번드는 서성명성의 무덤바리의 비밀과 동방의 대운으로 15진주 대도통군자를 배출하며 삼라만상 영과혼 일체창생을 얻는 진인경신도통 입문경전 대법회에 입문하시어 종교통일 세계평화 통일 불국정토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상용 전문하달 지리의 원방각 해인도법의 잣대로 천지인을 통찰하는 진가의 무위진인 최상승법의 기도에 그대를 초청하오니 이 득도초 생과 死를 제도하고 국가와 민족에게 이바지하는 도통자 되소서. 이세상의 승승이 누구겠습니까. 무위진인의 승승은 바로 당신인 것입니다.  
**진인경신도통 비법과 신비의 동양철학 최단기 특강** **세계불교 달마중 승 본산 진불선원장 泰日法師**

정부는 최근에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소위 '9·4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라는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금년 들어 벌써 세 번

개편, 재산세 개편, 아파트 청약제 개편, 심지어 교육정책까지를 망라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그야말로 종합 대책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교육정책을 어떻게 부동산 안정대책의 수단으로 삼는단 말인가. 물론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워낙 높고,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부동산값이 치솟는 근본적 이유가 교육 문제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지 교육정책을 부동산정책의 수단

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수립하는 수밖에 없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떤 규제나 조세 정책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또 부동산 시장에 과열된 투기가 문제가 된다면 투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할 것이다. 투기현상은 어디에서 오는가? 모든 투

올바른 길이 없을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왜 서울 강남의 집값은 강원도 산골 집값의 열 배, 백 배가 되는가? 서울 강남의 집이 우리에게 그 만큼 더 인락하고 편리함을 주기 때문인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단지 사람들이 서울 강남의 집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가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머리 속으로 만들어 낸 망상일 뿐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들이 지어낸 망상들은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만들어 낸 망상에 집착하여 삶을 스스로 고통과 괴로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불자 세상보기



정기문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째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의 말에 의하면 그 동인의 대책이 '자금 출처 조사' 등의 응급처방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신도시 개발, 양도세

### 아파트값 인상도 망상·집착에서

가격 불안정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투기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과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더 한심한 것은 백년 앞을 내다

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객을 전도시키는 꼴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값은 왜 항상 불안정한가? 많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택 공급의 부족과 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첫번째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든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

기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다. 물론 정도의 문제일 뿐이지 세상의 모든 미래는 항상 불확실한 것이다. 도처에 투기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려 있는데, 그것들은 제거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규제나 처벌의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는 것'이라면 저것을 없애려면 이것을 제거하는 길 밖에는

### 생명윤리법안 찬·반 '팽팽'

최근 '체세포 복제 전연 금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생명윤리법안을 둘러싸고, 종교·시민단체와 생명공학계 사이에서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간 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체세포 핵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들거나 자궁의 착상 임신 출산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또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만들거나 정자와 난자를 파는 행위,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과 같은 이종간 착상 등도 금지했다. 다만 대통령 자문기구인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한 경우는 연구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주요장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종교·시민단체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생명윤리란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미비했던 법적인 장치 마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예외규정을 둔 점과 관련, 약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윤리측면서 종교·시민단체들은 환영  
생명공학계 치료용 배아 연구 길 막혀

생명공학계는 치료용 배아복제 연구조차 어려워진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배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는 치매와 파킨슨병, 당뇨병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인간 개체 복제만 금지하고 나머지 분야는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9월 23일 입법예고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이들 단체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a.com

### “생명윤리법 인간존엄성 확보 의미 유전자 조작·도덕성 문제는 별개”

기고 김용정(생명윤리자문위 자문위원)



9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률안의 특징은 '생명공학 발전'보다는 '생명윤리 존중' 쪽에 무게를 둔 점을 들 수 있다. 필자는 불교계를 대표하여

과거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생명윤리기본법안을 만드는 데에 동참했던 만큼 그 기본 골격을 잘 이해하고 있다. 본인은 유전자 조작과 윤리·도덕적 문제는 별개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생명공학은 유기론적·전체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생명은 유기론적으로 보면 부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유전자 조작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유전자 조작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윤리·도덕적 문제는 결과에 대한 예측일 뿐이다. 복제했다고 똑같은 수는 없다고 본다. 각자의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업까지 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제인간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대두하는 이면에는 인간의 창조자 신의 고유 권능이라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전제되어 있다.

조건이 맞으면 생겼다 조건이 맞으면 사라진다는 것이 불교적 시각이다. 조건의 창출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달려있다면 예상되는 이후의 문제 역시 인간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이번 복지부안은 원칙적으로 과거부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며,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문제들은 양부처간에 잘 협의의 될 것이다.

### 이렇게 들었다

### 폭탄테러국 소녀에 신장기증

### 죽어 한 생명 살린 이방인

팔레스타인 측의 자살 폭탄 테러로 이스라엘에서 숨진 스코틀랜드 출신 대학생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 팔레스타인 민족의 소녀를 살려냈다. 영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는 신학 공부를 위해 이스라엘에 유학 온 이 대학생이 치료 중 숨지자 가족들은 그의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고, 신장은 이식 대기자 명단의 순서에 따라 한 팔레스타인 소녀에게 이식됐다. 숨진 대학생의 가족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줬다는 것이야 국적과 종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 주위 사람들을 숙연케 했다. 부처님께서는 "만일 성냄과 원한을 가지고 대중을 어지럽히는 것이 있거든 마땅히 화합(和合)해 다툴의 근본을 뿌리 뽑으라"고 말씀하셨다.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지 말고, 자비심으로 화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스코틀랜드 대학생의 팔레스타인 소녀에게의 신장기증은 인류애의 표현이다.

그들을 내 몸과 바꾸어 비교해 보아라. 산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 남을 시켜 죽이게 해서도 안 된다.

순타니파타  
누가 내게 성내어도 성냄으로 갖지 말라. 악에 대해서 악한 마음 내지 말고 마땅히 교만한 마음 없애야 한다. 성내지 않고 해치지 않으면 마땅히 성현이라 부를 수 있다.

잡아함경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법구경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 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조사가 서쪽에세운 큰 뜻은?**  
不立文字 見性成佛에 있으며  
達摩西來一字無  
全憑心印用工夫  
若向紙上尋佛法  
筆沾尖乾洞庭湖  
千經萬典不如心  
昂明人中師一點  
**통일부장관상 수상**

동양미술대전 특선 및 동경 국제서화대전 은메달 수상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전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이 고민하십니까?  
● 민병의 근원인 비만증, 치매, 중풍 등 각종 병마를 이기는 법에 동참하시어 만수무강 하시는 대도통하시기 바랍니다.  
웅조 달마상의 비법은 세태양의 법도로 흥한터, 수백차단, 초상, 상문, 사업장, 이사, 개업, 학업, 진학, 고시 등 일체 마당을 소멸할 수 있는 달마도상을 모셔 소원성취하시고 달마종의 근본 법도와 진정한 종교의 근본 진리를 통하여 만인을 구하고 위로는 꺼져가는 민족의 얼과 종교의 근본 혼을 찾아 지구촌 이그리진 법도를 바로 세워 만종생들의 고통을 구제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본 중단 달마중에 입문하시고 본 중단에서는 복지자의 인연을 맺고자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천년에 한번드는 서성명성의 무덤바리의 비밀과 동방의 대운으로 15진주 대도통군자를 배출하며 삼라만상 영과혼 일체창생을 얻는 진인경신도통 입문경전 대법회에 입문하시어 종교통일 세계평화 통일 불국정토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상용 전문하달 지리의 원방각 해인도법의 잣대로 천지인을 통찰하는 진가의 무위진인 최상승법의 기도에 그대를 초청하오니 이 득도초 생과 死를 제도하고 국가와 민족에게 이바지하는 도통자 되소서. 이세상의 승승이 누구겠습니까. 무위진인의 승승은 바로 당신인 것입니다.  
**진인경신도통 비법과 신비의 동양철학 최단기 특강** **세계불교 달마중 승 본산 진불선원장 泰日法師**

**대도통군자 15진주, 동방의 대운으로 생과 死의 창생 진인경신도통대법회**  
제72회 대도통군자들에 천장지비의 비법이 임오년 10월 18일 자시와 19일 오시(음9월 13, 14일)에 다시없는 해인도법 갖대를 얻어 천안동에 도전하시어 신비의 초능력의 갖대를 얻어 지구촌의 이그리진 법도와 종교의 얼과 혼을 바로 세워 종교의병 육신의병 마음의병 정신의병 잡신의병을 제도 하는 대도통군자 영통능력자 되소서. 후천 미륵 달마도법의 요점의 시대는 팔조신장이 지구촌을 샅샅이 인과법으로 정음신과 잡신(수마, 인마, 병마)에 극성으로 병명도 없이 우환, 질병, 각종 암의 고통으로 곱살 단명 중풍에 시달리는 것을 왜 모르고 계시니까. 진인도통군자들은 태산같은 중병의 삼독을 벗고 앉아서 십년할 공부를 단 한번으로도 말문과 영통비법과 자성통을 통하여 건강수명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초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릴 웅용정진도통에 입문하여 소원성취하시고 인류 스승되소서. 진사성인출, 오미낙 당당의 비밀장과 만병의 근원인 비만증병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얻어 건강 수명 장수 하시고 도통군자 되소서. 인간에게는 주처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종교와 학예에 의지하지 말고 무엇때문에 종교를 믿고 도를 통하여 어디에 쓸려고 고행하십니까! 이번 법회에는 생명을 노리는 중풍, 치매, 혈압당뇨병, 관절염, 골다공증 이러한 병을 제도할 수 있는 비법을 공개 하오니 입문하시어 견선득도하여 수명장수 하소서.  
●입제 : 10월 18일 금요일(해시) ●해제 : 19일 토요일(해시)  
02) 821-6622 / 821-7767~8 / (016) 239-3110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2번출구  
일반버스 85, 25, 95, 26, 303, 142, 26-3, 102번도자원고 하차.  
웅조미륵 진인 경신 도통회장 天龍眞人  
**세계불교 달마중 승 본산 진불선원장 泰日法師**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 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www.ogapiland.co.kr